



## 한국호스피스협회가 가야할 길

전 재 규 \_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각**자 각양의 단체는 지향하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가야할 분명한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잘 못 들거나 도중에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도 가야할 분명한 길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정관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적 돌봄의 호스피스 활동”과 “하나님의 생명사랑”을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호스피스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진리위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의 봉사는 인간의 생사관에 따라 환자에게 접근하는 섬김의 방식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호스피스는 196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1981년 이후 서서히 앞서가는 교육기관에 소개되어 우리사회에도 교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흐름 속에서 1991년 11월 7일에 결성된 한국호스피스협회는 한국 사회에 호스피스를 눈물과 땀으로 널리 홍보하였으며 수만 명의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와 전문인을 양육해 낸 절대 절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국호스피스협회는 춘추로 5,6백 명이 운집하는 대 집회의 호스피스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호스피스 표준 교재인 호스피스 총론과 호스피스 협회지를 발간하였고, 자원봉사자 인증 시험을 통한 인증서를 발부하였으며,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였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호스피스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실로 2003년에는 정부가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호스피스를 제도화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화의 결심을 발표하자 전국의 의료기관들은 우후죽순으로 자신들의 병원을 upgrade할 목적과 상업회의 관심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채득하기도 전에

일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많은 혼란과 물의를 일으킬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호스피스가 설립되어 발전해 나가는 도상에서 우리는 협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2월26일에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부족한 제가 초대 이사장의 직책을 수임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추계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보면 저의 부족함과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호스피스의 건전한 정책을 위한 우리 협회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강한 느낌을 가집니다.

한국호스피스 협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야할 십자가의 길을 어려워도 힘 있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부활 신앙이요, 구원과 영생의 신앙이며, 재림신앙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위에 세워지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육체적, 인격적, 영적존재로 구성된 전인을 사회적 존재의 귀중한 구성원으로 높이는 섬김의 도리를 쌓아 가야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스피스사역은 한국 교회의 목회 사역의 핵심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생명사역이요, 영생의 길로 향한 관문을 통과하는 구원사역이므로 한국호스피스 협회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호스피스 사역이 목회사역의 일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스피스를 강조하면서도 영적 돌봄이 무엇이며, 존엄성이 무엇이며, 전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돌봄과 인간의 존엄성과 전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산하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신 임원들과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